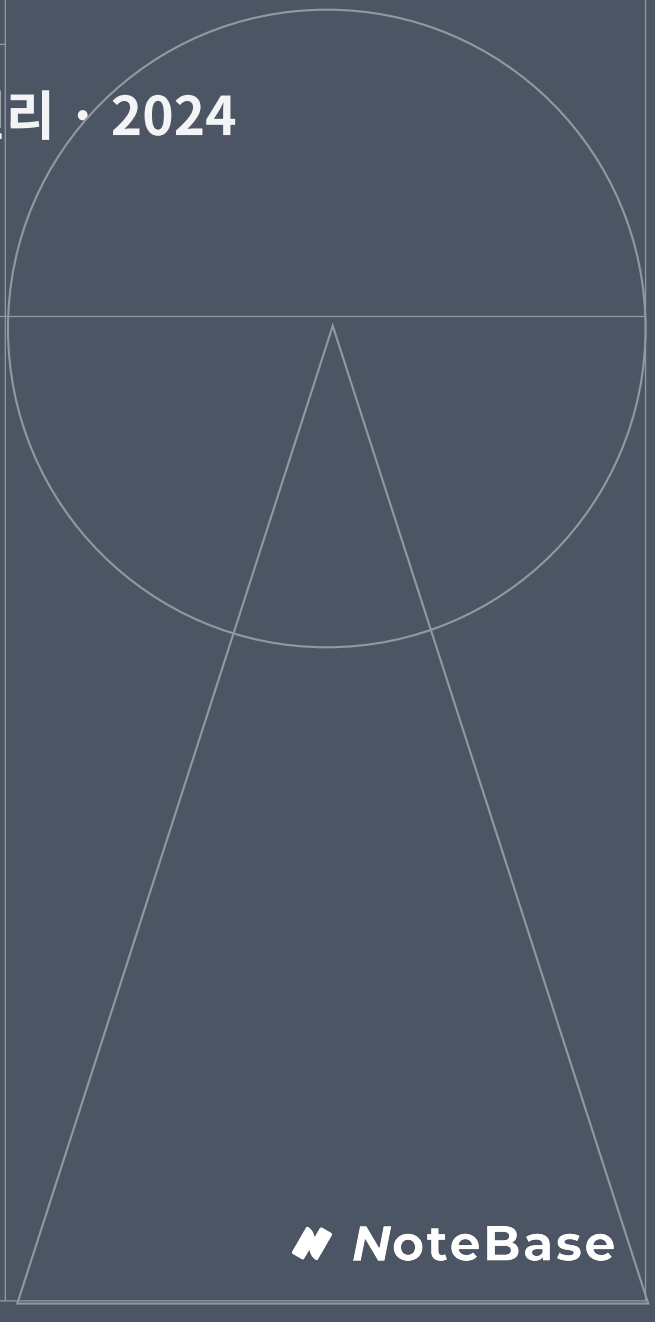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4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4

문 1. 20x1년 4월 1일 (주)한국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연 이자율 6%)에 현금을 예치하였으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수취한다. (주)한국이 결산일에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 20x1년 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부채에 영향은 없고,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②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소계상된다.

③ 자산은 과대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된다.

④ 자산과 자본은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만기에 받을 이자라도 결산일까지 발생한 부분은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자산과 수익이 빠져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소계상**된다.

핵심 풀이

발생주의에서는 현금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한다. 20x1년 4월 1일 예치한 연 이자율 6%의 정기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다음 해 만기일에 받지만, 20x1년 말에는 이미 9개월분의 이자가 발생해 있다.

결산 시에는 그 9개월분의 이자에 대해 '(차변) 미수수익 / (대변) 이자수익'으로 수정분개한다. 미수수익은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받지 않은 수익에 대한 **수취권을 나타내는 자산**이고, 이자수익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

이 수정분개를 누락하면 미수수익이 빠져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이자수익이 빠져 당기순이익도 과소계상된다. 당기순이익이 자본에 반영되므로 자본 역시 과소계상되며, 부채에는 영향이 없다. 핵심은 현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수익은 발생했으므로, 누락 시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소계상**된다는 점이다.

NoteBase

문 2.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②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④ 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는 기간 간 비교를 위해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계기준이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면** 기존 방법을 고수하지 않고 그 요구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계속기업은 기업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영업을 계속한다는 전제이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그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

② O: 발생기준 회계는 현금의 수취·지급 시점이 아니라 거래나 사건의 발생에 따라 그 영향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외상판매에서 수익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대금을 받기 전에도 매출과 매출채권을 인식한다. 재무제표는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기준**으로 작성하며, 현금흐름 정보는 실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준다.

③ O: 비교정보는 당기 정보를 전기 정보와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이다. 비교 대상은 금액에 한정되지 않는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과거 상황을 설명한 서술형 정보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④ X: 표시와 분류를 매기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간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러나 **회계기준이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그 요구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표시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기초 선수임대료는 ₩16,000이고 기말 선수임대료는 ₩24,000이다. 당기에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가 ₩50,000인 경우, 당기 임대료수익은?

① ₩42,000

② ₩50,000

③ ₩58,000

④ ₩66,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선수임대료는 미리 받았지만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다. 당기에 선수임대료가 **8,000원 증가**했으므로, 현금 수취액 50,000원에서 이를 뺀 42,000원이 당기 임대료수익이다.

계산 과정

선수임대료는 임대료를 미리 받고 아직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아 부채로 남겨 둔 금액이다. 임대료수익은 **현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임대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인식하므로, 현금 수취액에 기초·기말 선수임대료를 반영한다.

기초 선수임대료 16,000원은 전기에 현금을 받았지만 기초까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다. 여기에 당기 현금 수취액 50,000원을 더한 66,000원은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과 기말에도 선수임대료로 남을 금액의 합계이다.

이 중 기말 선수임대료 24,000원은 **당기 말에도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제외한다. 당기 임대료수익은 16,000 + 50,000 − 24,000 = 42,000원이며,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발행 시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할인발행된다.

②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 매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증가한다.

③ 사채할증발행차금 잔액은 매년 감소한다.

④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유효이자율법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상각으로 사채의 장부금액이 늘어나 이자비용은 커지지만, 액면금액에 액면이자율을 곱한 이자지급액은 일정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이자지급액이 일정하고 만기에 액면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일반적인 사채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사채의 장부금액은 할인발행 시 액면금액에서 미상각 할인발행차금을 뺀 금액이고, 할증발행 시 액면금액에 미상각 할증발행차금을 더한 금액이다.

① O: 사채의 발행금액은 앞으로 지급할 이자와 만기 상환액을 발행 시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으면 약정된 이자만으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낮아져** 할인발행된다.

② O: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기초 장부금액에 발행 시 정해진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비용을 구한다. 할인발행한 사채는 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할 때마다 **장부금액이 증가**하므로, 같은 유효이자율을 곱해 산정하는 매년의 이자비용도 증가한다.

③ O: 사채할증발행차금은 발행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사채의 존속기간에 걸쳐 상각하면 사채 장부금액이 액면금액을 향해 낮아지며, **미상각 할증발행차금 잔액도 감소**한다. 만기에는 전액 상각되어 잔액이 없어진다.

④ X: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유효이자율법에서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이자비용에서 실제 이자지급액을 뺀 금액이다. 액면금액과 액면이자율에 따라 이자지급액은 일정하지만, 상각으로 장부금액이 늘면서 이자비용은 증가하므로 두 금액의 차이인 상각액도 커진다. 매년 감소하는 것은 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 잔액이다.

NoteBase

문 5.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②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한정으로 판단한다.

④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각을 중지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상각**하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는다**. 비한정은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상각은 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반면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상각하지 않는다**.

② X: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해당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개발단계 지출로 보아 자산화할 수 없다.

③ X: 내용연수 추정에는 추정 시점의 표준적인 성능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래지출과 이를 부담할 기업의 능력·의도만 반영한다. 그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지출에 의존하여** 내용연수를 비한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비한정은 관련 요소를 종합했을 때 순현금유입 창출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다는 의미이며, 무한을 뜻하지 않는다.

④ X: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각을 중지하지 않는다**. 상각이 완료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예외이며,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상각 중지 시점은 매각예정 분류일과 자산 제거일 중 이른 날이다.

NoteBase

문 6.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원가 측정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관한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② 현행가치 측정치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③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입할 때 지급하거나 부채를 차입할 때 수취하게 될 가격이다.

④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할 가격**이다. ③은 이를 자산의 매입이나 부채의 차입 시 가격과 혼동했다.

선지별 해설

① O: 역사적 원가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 또는 사건 당시의 가격**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도출한 정보를 사용한다. 따라서 과거 거래를 바탕으로 자산·부채와 관련 수익·비용을 화폐금액으로 나타내는 측정기준이다.

② O: 현행가치는 **측정일 현재의 조건**을 반영하도록 정보를 갱신하여 측정한다. 최초 거래 당시의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적 원가와 달리, 측정일 사이에 발생한 가치 변동을 반영한다. 공정가치와 현행원가 등이 이에 포함된다.

③ X: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할 가격**인 유출가치이다. 자산을 매입할 때 지급하는 가격이나 부채를 차입할 때 수취하는 금액처럼 자산·부채를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시점의 가격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입할 때 지급하거나 부채를 차입할 때 수취'를 '매도할 때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을 취득한다고 할 때의 원가이다.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에 그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더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자산을 팔 때 받을 금액을 보는 공정가치와 달리, 현재 동등한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드는 금액을 보는 유입가치이다.

NoteBase

문 7.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②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③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④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조정은 공시할 필요가 없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조정은 공시해야 한다**. 이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할 수 있으므로, 표시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유동·비유동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이연법인세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회수나 결제 예상 시점이 12개월 이내이더라도 **유동항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표시 규칙이 적용된다.

② O: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자산을 취득한 때부터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예를 들어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면 판매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시점까지 포함한다.

③ O: 수익과 비용은 **보고서 본문뿐 아니라 주석에서도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일상적이지 않거나 드물게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이유로 특별손익이라는 별도 범주를 만들어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X: 재분류조정은 당기나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옮길 때의 조정이다. 이미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 이익을 당기손익에 포함할 때에는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하여 총포괄손익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재분류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공시해야 한다'로 고친다.

NoteBase

문 8.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②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비슷하거나 관련된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③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그 결과 새로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큰 금액이 된다.

④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큰 금액'은 **낮은 금액**으로 고쳐야 한다. 평가손실을 환입한 뒤에도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환입은 **당초 평가손실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 판매가격에서 추가로 필요한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이다. 취득원가에는 매입원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원가, 현재의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기타 원가가 포함된다. 이는 재고자산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갖추는 데 든 원가를 자산에 반영하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표시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② O: 저가법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적용**한다. 다만 용도 등이 비슷하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개별 평가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같은 제품군의 항목 등은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관련 없는 재고자산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여 일부 항목의 가치 하락을 다른 항목의 가치 상승으로 상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X: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당초 평가손실을 한도로 환입하지만, 환입 후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이다. 따라서 '큰 금액'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예를 들어 취득원가 100원인 재고자산을 70원으로 감액한 뒤 순실현가능가치가 90원으로 회복되었다면, 20원을 환입하여 장부금액을 90원으로 한다.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높아지더라도 환입 후 장부금액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O: 평가손실 환입은 과거에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식한 비용을 되돌리는 것이므로,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재고자산 관련 비용을 차감**한다.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를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하며, 과거 평가손실이 발생했던 기간의 비용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9.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자산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②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④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안전·환경 목적의 유형자산도 **다른 자산에서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는 데 필요**하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일상적인 수선·유지는 유형자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때 발생한 인건비·소모품비 등의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X: 안전·환경 목적의 설비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는 데 필요**하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오염방지설비는 자체 매출이 없어도 공장의 생산·판매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등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③ O: 유형자산의 인식요건 중 하나는 관련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효익의 유입이 반드시 확실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단순히 유입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④ O: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뿐 아니라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산으로 기록할 금액을 믿을 만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앞으로 얻을 이익의 금액을 정확히 확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0.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② 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재무적 개념 하에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③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주로 명목상의 투하자본이나 투하자본의 구매력 유지에 관심이 있다면 재무적 개념의 자본을 채택하여야 한다.

④ 자본개념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선택된 자본개념에 따라 이익의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자본개념을 실제로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도, 선택된 자본개념은 **이익을 결정할 때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다.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목표까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하고 남는 **잔여지분**이다. 자산 중 채권자에 대한 의무인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가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이므로, 자본을 순자산이라고도 한다.

② O: 재무적 자본개념은 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파악한다. 이 관점에서는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이 자본을 나타낸다. 기업의 생산능력으로 자본을 파악하는 실물적 자본개념과 구별된다.

③ O: 자본개념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따라 선택한다. 이용자가 투자한 금액 자체인 명목상의 투하자본이나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재화·용역의 양인 구매력의 유지에 관심이 있다면 재무적 자본개념을 채택한다. 반면 기업의 조업능력 유지가 주된 관심이라면 실물적 자본개념을 채택한다.

④ X: 자본개념을 실무에 적용하는 데 측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택된 자본개념은 **이익 결정의 목표를 제시한다**. 자본개념은 무엇을 유지할 자본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해야 할 자본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익으로 구분하게 한다. 따라서 '이익의 결정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표현은 '이익을 결정할 때 달성해야 할 목표를 알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1. 20x1년 초 (주)한국은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액면금액 ₩100,000인 무이자부어음(6개월 만기)을 수취하였다. (주)한국은 3개월간 해당 어음을 보유한 후 거래은행에 연 10%로 할인받았다. (주)한국이 받을어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거래은행에 이전하였다면 받을어음 할인 시점에 인식할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① ₩0

② ₩2,500

③ ₩3,000

④ ₩5,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은행 할인료는 어음을 보유한 기간이 아니라 **할인일부터 만기까지 남은 3개월**에 대해 계산한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했으므로 받을어음을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인 2,500원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한다.

계산 과정

1. 회계처리 기준: 받을어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은행에 이전**했으므로 받을어음을 장부에서 제거한다. 이때 받을어음의 장부금액에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한다.

2. 만기금액과 할인기간: 무이자부어음은 별도 약정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만기금액은 액면금액과 같은 100,000원이다. 만기는 수취일부터 6개월 뒤이고, 3개월 보유 후 할인했으므로 **할인일부터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은 6 − 3 = 3개월이다.

3. 은행 할인료와 수령액: 은행 할인료는 만기금액에 은행의 연 할인율과 잔여기간을 곱해 구한다. 월할 계산하므로 3개월을 1년의 $\frac{3}{12}$로 환산한다. 할인료는 $100{,}000 \times 10\% \times \frac{3}{12} = 2{,}500$원이다. 은행은 이 금액을 미리 공제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100,000 − 2,500 = 97,500원이다.

4. 매출채권처분손실: 받을어음의 장부금액 100,000원에서 실제 수령액 97,500원을 차감하면 100,000 − 97,500 = 2,500원이다. 따라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2,5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계약의 식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②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④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려면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시기·금액 중 하나 이상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해야 한다. 이는 기업과 고객이 약속한 재화·용역의 이전과 대가 지급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는지를 확인하는 요건이다. 승인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나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를 수도 있다.

② X: 계약은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시기·금액 중 하나 이상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를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로 고쳐야 한다. 세 요소가 모두 변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의 식별은 각 당사자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지급조건의 식별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선지는 이 두 식별요건을 함께 서술하였다.

④ O: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를 평가할 때는 고객이 지급기일에 해당 금액을 지급할 능력과 의도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계약에 대가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3. 다음 자료를 이용한 당기 매입채무 현금지급액은?

◯ 당기 매출액 ₩200
◯ 기초 상품재고액 ₩30
◯ 기말 상품재고액 ₩20
◯ 기초 매입채무 ₩50
◯ 기말 매입채무 ₩60
◯ 매출총이익률 20%
◯ 당기 매입액 중 외상매입 비율 60%

① ₩80
② ₩90
③ ₩140
④ ₩15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당기 외상매입액은 90원이고, 매입채무는 기초보다 10원 증가했다. 외상매입액 중 **매입채무 증가분을 뺀 80원**이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계산 과정

1. 매출원가: 매출총이익률 20%는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매출총이익은 200 × 20% = 40원이며, 매출액에서 이를 빼면 매출원가는 200 − 40 = 160원이다.

2. 당기 매입액: 기초 상품재고액에 당기 매입액을 더한 금액 중 기말에 남은 상품을 제외하면 매출원가가 된다. 따라서 **매출원가에 기말재고를 더하고 기초재고를 빼서** 당기 매입액을 구한다. 당기 매입액은 160 + 20 − 30 = 150원이다.

3. 당기 외상매입액: 당기 매입액 중 **외상매입한 60%만 매입채무를 증가**시킨다. 당기 외상매입액은 150 × 60% = 90원이다. 현금매입분은 매입채무를 거치지 않으므로 매입채무 지급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매입채무 현금지급액: 기초 매입채무 50원에 당기 외상매입액 90원을 더하면 갚아야 할 채무는 140원이다. 이 중 **기말에 남아 있는 매입채무 60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기에 지급했다. 현금지급액은 50 + 90 − 60 = 80원이다. 당기 매입채무 현금지급액은 8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보강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교가능성은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며, 일관성과는 구별된다.

②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며, 검증은 간접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 후의 모든 정보는 적시성이 없다.

④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가능하게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보고기간 말 후의 모든 정보는 적시성이 없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보고기간 말이 지난 정보도 추세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하면 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비교가능성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일관성은 같은 항목에 대해 기간 간 또는 기업 간에 동일한 회계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즉,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므로 두 개념은 구별된다.

② O: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표현하려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금을 직접 세어 확인하는 직접검증뿐 아니라, **투입자료를 확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과를 다시 계산하는 간접검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확인한 뒤 동일한 원가흐름 가정으로 장부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③ X: 적시성의 정의는 맞지만, 보고기간 말이 지나면 모든 정보의 적시성이 사라진다는 결론이 잘못되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정보일수록 유용성이 낮아지지만, 이용자가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평가하려면 과거 정보도 필요하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 후에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④ O: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그 특징을 드러내며, 적절하게 표시하면 이용자가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쉬워진다. 이는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복잡한 현상에 관한 정보라고 해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은 보유 중인 매출채권 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회계기간 말에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주)한국이 기말에 인식하여야 할 대손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대손충당금 기초잔액은 없다)

①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

② 매출채권의 과소계상

③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

④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말에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처리를 누락하면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다.

핵심 풀이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중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반영하는 차감 계정이다. 기초잔액이 없으므로 기말에 필요한 충당금 전액을 '(차변) 대손상각비 / (대변)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분개를 누락하면 필요한 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아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다.

같은 분개에서 비용인 대손상각비도 누락된다. 따라서 대손상각비는 과소계상되고, 비용이 적게 반영된 만큼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대손상각비의 과대계상이나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과는 반대 방향이다.

대손충당금 설정은 매출채권 계정 자체를 직접 줄이는 처리가 아니다. 따라서 **매출채권 계정 잔액은 변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차감할 대손충당금이 적게 계상되어 매출채권의 순장부금액은 과대계상된다.

NoteBase

문 16. (주)한국의 기말 수정분개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수정분개를 반영한 후 당기순이익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4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3,600을 선급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 8월 1일: 건물을 임차하고 1년분 임차료 ₩2,400을 선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 10월 1일: 창고를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받은 현금 ₩4,800을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였다.
◯ 기말 수정분개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5,000이다.

① ₩2,100
② ₩2,500
③ ₩4,900
④ ₩5,1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말에는 **당기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이익을 조정한다. 보험료 비용 2,700원을 차감하고, 과다 인식한 임차료 1,400원과 당기에 발생한 임대료 수익 1,200원을 가산하면 당기순이익은 4,9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말 수정분개는 현금의 지급·수취 시점과 관계없이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는 절차이다. 1년분 금액을 월할 계산하므로 해당 금액에 적용 개월 수를 12개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수정 전 당기순이익 5,000원에는 이미 기록한 수익·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각 거래의 수정으로 달라지는 금액만 가감한다.

보험료: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분이 당기 비용이다. $3,600 \times \frac{9}{12} = 2,700$원이지만 처음에는 전액 자산으로 기록하여 비용에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기 사용분 2,700원을 보험료 비용으로 인식**하고 선급보험료를 줄이며, 당기순이익은 2,700원 감소한다.

임차료: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분인 $2,400 \times \frac{5}{12} = 1,000$원만 당기 비용이다. 이미 2,400원 전액을 비용으로 기록했으므로, 나머지 7개월분인 $2,400 \times \frac{7}{12} = 1,400$원은 **차기에 사용할 선급임차료로 대체**한다. 임차료 비용이 1,400원 줄어 당기순이익은 1,400원 증가한다.

임대료: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분인 $4,800 \times \frac{3}{12} = 1,200$원은 당기에 발생한 수익이다. 처음에는 받은 금액 전부를 부채인 선수수익으로 기록했으므로, **임대가 이루어진 3개월분을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선수수익을 줄인다. 당기순이익은 1,200원 증가한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 5,000 − 2,700 + 1,400 + 1,200 = 4,900원이다. 이는 ③의 4,90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차입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리적인 제작 전에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은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 포함된다.

②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개발활동 없이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 대상에 해당한다.

③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본다.

④ 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과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건설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개발활동 없이 보유하는 기간**의 차입원가는 자본화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자본화하려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활동이 실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활동에는 물리적인 제작뿐 아니라 **제작 전 인허가를 얻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활동**도 포함된다. 따라서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이러한 준비활동을 수행하고 자산 관련 지출과 차입원가가 발생하면 자본화를 시작한다.

② X: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도 개발활동 없이 단순히 보유하는 동안에는 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간의 차입원가는 **자본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취득 목적이 건설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본화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③ O: 자본화는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한 활동이 **대부분 완료되면 종료**한다. 물리적으로 완성되고 일상적인 후속 관리업무만 남았다면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관리업무가 계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연장하지 않는다.

④ O: 주석에는 **회계기간 중 자본화한 차입원가의 금액과 그 산정에 사용한 자본화이자율**을 공시한다. 자산 원가에 포함한 차입원가의 규모와 이를 산정할 때 적용한 이자율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NoteBase

문 18.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미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과 같은 그 밖의 부채와 구별된다.

②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는 충당부채로 처리한다.

③ 우발자산은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④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인 현재의 의무는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불확실한 미래사건에 따라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는 **우발부채**에 해당한다.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 의무**에 대해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할 때 필요한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매입채무는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청구되었거나 공급자와 합의된 채무이다. 미지급비용도 지급 시기나 금액을 추정해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불확실성이 충당부채보다 훨씬 작다.

② X: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는 **충당부채가 아니라 우발부채**이다.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 의무가 있고, 의무 이행에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③ O: 우발자산을 인식하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미리 인식하게 되므로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해지면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자산과 수익을 인식한다.

④ O: 현재의 의무에는 계약이나 법률 등에서 생기는 법적의무와 **의제의무도 포함**된다. 의제의무는 기업의 확립된 과거 관행, 공표된 정책 또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하여 생긴다. 단순한 내부 의사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제의무도 다른 인식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재무상태표에 대한 자료이다. 20×1년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 10,000일 경우,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 선급보험료 ₩ 3,000 증가 ◯ 미수수익 ₩ 5,000 증가
◯ 미지급비용 ₩ 3,000 감소 ◯ 선수수익 ₩ 3,000 증가

① ₩ 6,000
② ₩ 9,000
③ ₩ 12,000
④ ₩ 18,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제시된 자산·부채 변동을 반영하면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보다 **8,000원 적다**. 따라서 영업활동현금흐름 10,000원에 8,000원을 더한 18,000원이 당기순이익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기순이익은 현금 수취·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제시된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을 조정하여 **발생주의 이익을 현금흐름으로 전환**한 뒤, 그 관계를 거꾸로 적용해 20×1년도 당기순이익을 구한다.

선급보험료 3,000원 증가: 선급보험료는 미리 지급했지만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보험료이다. 그 잔액의 증가는 보험료 현금 지급액이 당기 보험료 비용보다 3,000원 많다는 뜻이므로, 당기순이익에서 **3,000원을 차감**한다.

미수수익 5,000원 증가: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증가했다. 현금 수취액이 인식한 수익보다 5,000원 적으므로, 당기순이익에서 **5,000원을 차감**한다.

미지급비용 3,000원 감소: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줄었다. 당기에 발생한 비용보다 현금 지급액이 3,000원 많으므로, 당기순이익에서 **3,000원을 차감**한다.

선수수익 3,000원 증가: 현금은 받았지만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 증가했다. 현금 수취액이 인식한 수익보다 3,000원 많으므로, 당기순이익에 **3,000원을 가산**한다.

조정액 합산: 차감액은 3,000 + 5,000 + 3,000 = 11,000원이고, 가산액은 3,000원이다. 따라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보다 11,000 − 3,000 = 8,000원 적다.

당기순이익 계산: 영업활동현금흐름 10,000원에 순차감액 8,000원을 되더하면 10,000 + 8,000 = 18,000원이다. 이는 ④의 18,00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자료를 이용한 기말 자산총계는?

◯ 기초 자산총계 ₩800
◯ 기초 부채총계 ₩400
◯ 기말 부채총계 ₩300
◯ 당기순이익 ₩100
◯ 기중 유상증자액 ₩200
◯ 기중 발생한 재평가잉여금 ₩50

① ₩700
② ₩850
③ ₩900
④ ₩1,05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초 자본에 당기순이익·유상증자액과 함께 **재평가잉여금도 더하면** 기말 자본은 750원이다. 기말 자산총계는 기말 부채 300원과 기말 자본 750원의 합인 1,050원이다.

계산 과정

기초 자본총계: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기초 자본총계는 800 − 400 = 400원이다.

기말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100원은 이익잉여금을, 유상증자액 200원은 납입자본을 증가시킨다. 기중 발생한 재평가잉여금 50원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본을 증가**시키므로 별도로 더한다. 따라서 기말 자본총계는 400 + 100 + 200 + 50 = 750원이다.

기말 자산총계: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므로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을 합산한다. 기말 자산총계는 300 + 750 = 1,05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